

“민생경제 회복 방점”...곡성군 5대 전략 추진 박차

내년 예산 4천680억...정주여건 개선 집중
전 군민 버스 무료화·만원 주택 본격화
교통복지 완성·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입면 스마트팜·36홀 파크골프장 등 조성

곡성군이 내년부터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 주택’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조상래 군수는 전날 열린 제276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은 내년도 군정 목표를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는 해’로 정하고, ▲머물고



조상래 곡성군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76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싶은 활력 곡성 ▲부자 농촌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전 세대 맞춤 복지 ▲소통·공감 행정 등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방점

을 찍었다. 군은 교통 복지의 완성을 위해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하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운영을 확대한다.

여기에 청년하우징타운 조성, 전남형 만원 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싹싹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심정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도 확대한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군은 입면 스마트팜 거점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블루베리, 멜론 등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해 ‘돈 버는 농업’을 구상 중이다.

또한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하고, ‘곡성물’ 활성화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관광 분야는 ‘체류형’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정원 클러스터 구축,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착공 등을 통해 머무르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 밖에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마을 주치의 제도 ▲협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료폰’ 운영 ▲AI 기반 스마트 마을 기록관 ‘온담’ 구축 등 세대별 맞춤 복지와 군민 소통 채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억원 증가한 4천680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내년 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 따듯하고 책임 있는 ‘민생 예산’”이라며 “군민과 함께 걷고 행동하는 군정으로 곡성의 기본 좋은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겨울 제철 맞은 싱싱한 수산물 맛보세요”

고흥물, ‘동(冬)해산물 파티’ 기획전

9일까지 꼬막·굴 등 최대 30% 할인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이 겨울 제철을 맞은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고흥동(冬)해산물 파티-겨울 바다를 담다’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한 고흥산 겨울 수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지역 어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꼬막 ▲문어 ▲

새우 ▲굴 ▲낙지 ▲반건조 생선 ▲술불구이 생선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고흥은 청정 남해의 풍부한 일조량과 거센 조류 덕분에 사계절 내내 우수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철 수산물은 육질이 단단하고 풍미가 깊어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고흥물은 소비자 혜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테마 기획전을 꾸준히 선보였다. 올해 들어 신선 식품 카테고리의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겨울 기획전 역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겨울 바다의 신선한 맛을 가정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수산물을 엄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공익형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물은 올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콘텐츠 강화에 힘입어 최근 누적 매출 110억원을 돌파하고 회원 수 5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주성혁 기자

‘하늘을 따르는’ 순천의 멋 수목화로 만난다

11일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장안순 화백 등 작가 11명 참여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의 자연과 정신문화를 현대수목화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1층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묵향-하늘을 따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순천만(세계자연유산)과 선암사(세계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해 기획했다.

순천이 지닌 고유한 자연·환경·정신적 가치를 ‘수목’이라는 예술 언어로 풀어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전시에는 지역 대표 작가인 하정 장안순 화백을 비롯해 정경화, 조광익, 박도진, 박종길, 임재훈, 박창수, 이준하, 위진수, 정명돈, 최순영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박창수작 ‘동천 죽도봉’ ▶장안순작 ‘흑두루미 비상’

이들은 전시를 위해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동천죽도봉 등 ‘순천 10경’을 직접 답사했으며 현장에서 마주한 순천의 하늘과 물, 땅, 그리고 사람의 숨결을 먹의 농담과 여백의 미로 승화시켜 화폭에 담았다.

장안순 화백은 “지명인 ‘순천(順天)’은 하늘을 따른다는 뜻으로, 자연 앞에 겸허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순천의 세계관은 여백과 기운생동을 중시하는 한국 수목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본 순천만의 S자 갯골은 그 자체로 먹선 하나로 그린 듯 우려한



수목화와 같다”고 설명했다.

구분호 전시감독은 “순천은 도시 전체에 자연과 역사,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예술적 재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곳”이라며 “작가들이 보여주는 수목의 다양성은 단순한 전통의 재현을 넘어, 순천의 자연을 매개로 새로운 예술적 해석을 시도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자원운영팀 (061-746-2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양홍렬 기자

구례군 지사협 ‘복지 성과 공유대회’ 개최

우수 사례 공유...민·관 협력 다짐

구례군은 2일 “전날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2025년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협의체가 추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되돌아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망을 더욱 촘촘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지사협은 올해 ‘행복체감 100℃ 복지 달린다 시즌3’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행사에서는 읍·면 협의체의 현장감 있

는 우수 사례들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으며,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위원들에 대한 군수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협의체는 어려운 이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힘을 모아 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군, 첫 ‘임업인 한마음대회’...화합 다져

300여명 참석...유공자 표창도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민회관에서 ‘제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대회는 장성군임업인한마음대회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장성 지역 임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잔디, 뽕은감, 두릅, 대추, 고로쇠, 복분자, 오디, 표고버섯 등 8개 주요 임산물 생산자 단체를 비롯해 임업 후계자, 산림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초청 가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

부 개회식과 2부 화합 행사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에서는 임업 발전 유공자 표창과 산림헌장 낭독 등이 이어지며 임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신발 양궁 등 명랑 운동회와 품바 공연,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의 식탁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주신 임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유통 기반 조성, 생산 단지 구축 등 미래 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시의회 ‘주민세 환원’ 정책 간담회

5일 이순신도서관...백인숙 의장 주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민이 낸 세금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해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 의장은 오는 5일 오후 3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읍·면·동에 환원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의 주제 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의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

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순천과 당진 등 타 지자체가 이미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여수시도 이에 발맞춰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에서는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기준 ▲주민자치회의 예산 권한 강화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 결정 구조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가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세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여수형 자치 모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임신부 산전 검진비 지원 ‘호응’

검진 쿠폰 지급·영양제 제공 등

담양군이 추진 중인 ‘임신부 산전 검진비 지원사업’이 지역 임신부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부(다문화 가정 포함)를 대상으로 산전 검진비와 각종 건강 관리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하면 엽산제와 철분제, 탄산 크림 등 필수 물품과 함께 자체 제작한 출산 안내 책자, 산전 검진 쿠폰이 지급된다.

특히 산전 검진비는 임신 기간 총 13회까지 지원되며, 임신부들은 광주시에 소재한 4개 협약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또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1대1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엄마들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이밖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임산부 건강 교실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아이 낳기 좋은 담양’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